化粧品工業의 開拓者

太平洋化學工業 常務理事 丘 聳 燮

☆ ☆ ☆ ☆ ☆ ☆ ☆ ☆ ☆ ☆ ☆ ☆ ☆ ☆ ☆ ☆

高等學校때 有機合成을 工夫하기 始作한 것이 因緣이 되어 30年間 줄곳 藥品과 化粧品을 다루어온 丘聳燮氏는 會社重役이라기보다 亦是 學者的인 氣品을 풍긴다 1954年西獨에가 함부르크藥學大學에서 有機化學을 專攻했고 世界的으로 名聲이 높은 바이엘會社와 佛蘭西의 코티會社에서 化粧品原料인 染料와 顔料를 主로 硏究한바 있는 氏는 오랫동안 女性기호品인 香粧을 다룬데다가 유럽風이 몸에 밴 탓인지 洗鍊된 容모에 잔잔한 音聲이 優雅하기만 하다.

恒常 流行을 創造하고 理想的인 未來像을 追求하는 氏은 學硏的인 面에서 뿐 아니라 企業運營面에서도 識見이 卓越하고 主觀이 뚜렷하다.

'메이카—'는 工業道德을 지킬줄 알아야 합니다.

消費者를 爲해서도 그렇해야 하고 業者自身을 爲해서도 工業道德은 지켜야 한다는 主張이었다.

解放後 거이 荒무지였든 化粧品工業은 家內工業으로 出發하여 이젠 相當한 水準까지 올라섰다고 대견해 하는 丘常務은 그래도 아직 外國에 比해 뒤떨어져 있음을 솔직하게 是認하면서 先進國의 새로운 技術情報入手에 非常한 關心을 表示하고 있었다.

그래서 氏는 技術情報의 交流를 圖謀하기 위해 國際化粧品協會(28個會員國) 幹事職을 맞고 있으며 새로운 技術開發에 全力을 다하고 있다.

아모래가 하나의 化粧品代名詞처럼 되기까지에는 이와같은 氏의 숨은 功勞가 있으며 氏의 努力의 보람있어 이젠 멀리 東南亞에 相當한 量의 國產化粧品이 輸出되고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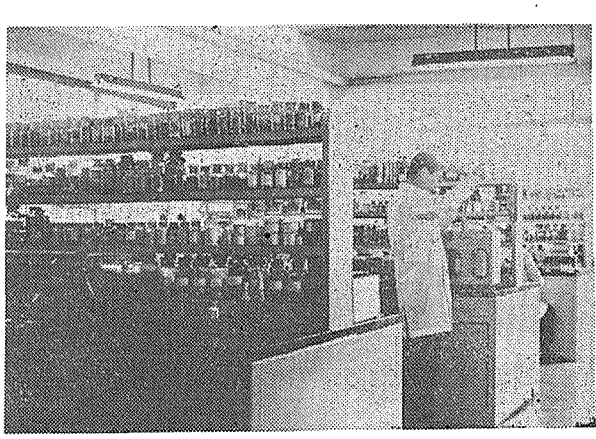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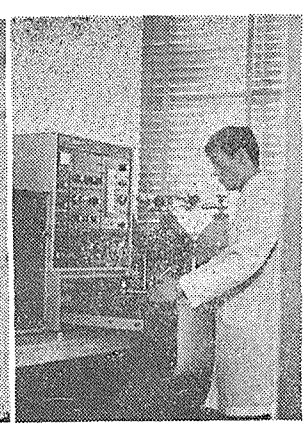
그러나 一部特殊層 女性이 外來品만을 崇拜하는 虛榮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氏는 우리나라 사람 皮부에 가장 적절한 新製品을 만들고 있으며 毛皮再生의 藥效까지도 겸한다고 自身있게 製品들을 說明하고 있었다.

氏는 20年前에 硏究室長으로 太平洋에 入社했지만 現在는 工場長을 거쳐 營業擔當常務理事職에 있다.

그러니까 氏의 젊음과 情熱은 太平洋에다 몽땅 쏟아 놓은 폭이다.

그러나 氏의 情熱은 아직 硏究室 후라스코 안에서 끓고 있으며 그의 意志가 시험관과 더불어 꼿꼿하게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韓國最大 最新의 硏究室을 이룩했다는 氏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미가 콜프라는 氏의 實力은 핸디 28이란다. 이젠 中年에 접어든 氏에게도 休養이 必要하리라.

(丘聳氏가 이룩한 硏究室)